

김정남 피살에 ... '안보' 대선 이슈로 급부상

문재인 "안보 영향 냉정 분석" 안희정 "국민 힘 모아야"

안철수 "국방비 GDP 3%로" 손학규 "정부 만반의 체비"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사드배치 촉구하며 '판 흔들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여야 대선 주자들은 안보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만약 정치적 암살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늘 전제하고 남북관계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재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다음 정부에 여러가지 외교적 카드를 주는 것"이라며 "지금 탄핵받는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서둘러 끝내버린다면 오히려 다음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SBS 방송에 출연 "북한 체제의 불안적 요소인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주 경악할 사건"이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내외의 불안 요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 참석 전 기자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현행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고도화된 북 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북한체제가 매우 유동적이고 취약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정국이 유동적이고 위협할수록 정부는 상황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북한발(發) 안보 이슈가 대선레이스에서 중대한 변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사드 배치 합의를 촉구하는 등 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암살 등 두 사건을 보면서 김정은 집단이 상상을 초월한 도발을 언제든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며 사드 2~3

개 포대를 국방예산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확실성의 첫째는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성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이날 트위터에 "김정남의 피살은 평양이 그만큼 초조해 있다는 반증"이라며 "권력은 종말에 이르러 가장 포악해진다"고 적었다.

같은 당 원우철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정권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정보위 간담회 참석하는 국정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오른쪽) 등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오른쪽) 등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전남도, 해삼으로 중국인 입맛 잡는다

10년간 서식장 200개 조성
우량종자 6000만마리 방류

전남도가 중국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 자원량 확대를 위해 올해 25억원을 들여 '해삼자원 조성사업'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해삼 서식장 200개소를 만들어 우량종자 60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해삼자원 조성사업은 낮엔 바위에 숨어 있다가 밤에 돌아다니는 해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다. 유숙 영양이 적고 먹이가 풍부한 해역에 돌, 어초 등을 투입해 해삼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는 방식이다.

올해 첫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서해

냉수대가 위치해 전해의 해삼 양식 조건을 갖춘 진도, 신안을 비롯한 6개 시·군이다. 상반기 중 어촌계 어업인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역별 맞춤형 서식장을 만들고 가을에 1~7g의 건강한 해삼 종자를 뿌릴 예정이다. 또 해삼 서식장 조성 해역을 중심으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채취활동을 제한해 해삼 자원 조성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해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거대한 중국 해삼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자원량 확보가 시급한 만큼 대폭적인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삼계탕 중국 수출길 막혀 ... 사드 때문?

전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삼계탕의 대 중국 수출이 막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상관 없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에 있는 (주)사조화인코리아는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 총 45t을 수출해 11만1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삼계탕 수출이 중단됐다.

삼계탕의 중국 수출 시 협약조건에 "AI 발생지의 반경 10km 내 농장에서 사육된 닭은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수출용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은 반경 10km 바깥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한우 수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방 정가

김동찬 "성적반영 고교배정 학생 피해만 초래"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 5)의원은 15일 열린 광주시의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학생 선택권 존중·고교 균등발전 등에 기여할 방안이라며 성적 등급 반영 고교 강제배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학생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고교 배정방식 도입 이후 학생 거주지와 먼 타 지역 자치구

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생 수가 2013년 678명, 2016년 1382명, 올해 141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광주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 피해를 초래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찬

박춘수 "보조·공모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 3) 의원은 1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가 보조·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동구(19.4%)·남구(13.9%)·북구(11.4%)·서구(10.9%)·광산구(7.6%) 등 순으

로, 광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박 의원은 "노인·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선 보조·공모사업 추진 때 의무적으로 고용률을 추가하는 한편 평가자료로써 가산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수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권노갑 고문, 동교동계 인사들과 조출한 미수연

권노갑(사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지난 13일 미수(米壽·88세)를 맞아 조출한 연회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동교동계 관계자는 "권 고문은 지난 월요일(13일) 오후 서울 근교의 모처에서 가족 및 동교동계 인사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미수연을 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현 시국상황을 감안해 현역 국회의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권 고문 측이 전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화환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수연은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치러졌으나 술한 고초를 이겨내고 민주화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권 고문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지인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고문은 지난 1961년 고교 선배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평생 곁을 지키며 DJ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의 최장으로 불려왔다.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아 목포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3선에 성공했다.

2015년 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선 후퇴를 권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초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